

## 재개발 추진중인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 동구청, 쓰레기 무단투기 방관 안 된다

이주민 가재도구 등 생활쓰레기 골목에 마구 버려

아직 떠나지 못한 원주민 불편 커...대책 있어야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이주하는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로 인해 골목마다 생활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관할 관청인 동구청은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일부 주민의 경우 이미 이주가 시작돼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는 데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가재도구 등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바람에 골목마다 쓰레기가 산

더미처럼 쌓여있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아직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불편이 적지 않다. 미관상 흉물스럽기 짝이없을 뿐만 아니라 잦은 비로 인해 일부 쓰레기의 경우 부패가 시작돼 악취를 풍기는가 하면 바

퀴벌레와 쥐 등 해충이 들끓어 정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주하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주민들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동구청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동구청은 재개발조합측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군데 군데 무더기로 쌓여있는 불법사출 쓰레기를 방지하지 말고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주를 서두르고 있는 주민 박모씨(55)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했으니 아무리 재개발지역이라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하는 관할 관청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고 분개했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조합측과 협조해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군, 새로운 소득작목 '엄나무' 집중 육성한다

강진군이 엄나무를 강진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나무는 염증치효에 탁월하고, 항염 효과 및 위장보호와 사포닌 함량이 많아 면역력 증가와 피로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강진에서는 5농가에서 엄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강진읍과 작천면, 도암면 일대 20ha 규모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봄철 엄나무 순과 연중 줄기를 생산하여 서울의 경동시장



나무 순이나 줄기만을 생산하여 유통하기 보다는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조분말을 이용한

떡류를 개발하고 순을 이용한 장아찌류와 엄나무 재배지의 특성을 활용한 산나물(더덕, 취나물, 고사리 등)을 산과하여 부

강진읍 · 작천면 · 도암면 일대 5농가

20ha 친환경 재배하여 年7톤 전국 유통

과 가락시장 및 충북 제천의 약초시장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150백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진군의 엄나무는 도암면 광영구(만 62세) 씨가 2009년 무안군에서 강진으로 이농을 하면서 소규모 재배하던 것을 소득작목으로 집중 재배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인근농가에서 엄나무 재배를 희망할 경우 분양 및 식재작업을 도와주는 등 이들 농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향후 단순 엄

수적인 수익 및 체험거리 등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엄나무는 주로 농가에서 순을 채취하여 봄철 채소로 소규모 이용해 왔으나, 강진군은 유휴농지와 활용 가능한 산지에 엄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전면적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해 나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광주 · 전남 산사태 취약지구 2443곳...5936명 거주

김현권 "철저히 조사해야"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2443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593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5545개소다.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만5903명에 육박하는 것

로 드러났다.

이중 전남의 경우 2372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북 4497개소와 강원 2779개소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전남의 산사태 취약지구에는 566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71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는 가운데 이곳에는 26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과 연결한 산지 사면단위의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며 "인공사면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예산을 배정해 신속한 조사완료와 유관기관과의 합동 조사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광주시, 교통사고 잦은 13곳 개선

광주시는 광산구 송정동 영광동 사거리와 무진대교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무진대로 일부 구간 등 13곳에 대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들어간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동일 위치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6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송정동 영광동 사거리, 남부대학교 사거리, 무진대로(우산동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앞-대한산업안전협회 앞), 북구 각화동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 등에서 진행된다.

김삿갓도 반한 국화동산에서

# 2019 화순 국화향연

2019.10.25.(금) - 11.10.(일)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17일간